

**불라!**

남태평양 피지에서 교회와 동역자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살롬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길어 지면서 세상의 죄악들이 수면으로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며,

홍수심판 전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파하셨던(창6:5-6)" 하나님의 마음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더 아픔과 더 감사로 다가옵니다.

지난 주일은 "Palm Sunday Worship"으로 피지에서는 아이들이 예배를 섬기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맞이하며,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마21:9)를 외쳤습니다.

세상의 큰 관심도, 주목도 받지 않고 외국 원조로 국가경제를 유지해가는

이 땅 피지에서,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에, 주를 향한 이 외침이

남태평양 피지에서 세상 곳곳으로 퍼져 나가길 간절히 기도 합니다

지난번 건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시 회복 되고 있음에 감사 드리며 기도해 주신

동역자분들 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작은아들은 과에서 한 과목 빼고 All A+로 1등을 했다고 소식을 전해와 작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기가 지나가고 다시 건기가 시작되면서 땅은 더욱 단단해 지듯이

태풍으로 피해 난곳은 더 튼튼하게 복구되고 심어 놓은 망고나무들도 잘 자라납니다.

3년이 지나면 열매를 얻을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속에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코로나시대 우울한 소식인 아닌 선교지에서 역동적이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길 간구하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 이웃사랑 (2021년 표어)



# FIJI Blessing

## 1. 어린이 사역(굿뉴스클럽)과 장학금 지원

종려 주일의 모든 순서를 그동안 굿뉴스 클럽에서 배운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며 간단한 말씀 나눔까지 준비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가정불화로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싱글 맘으로 생계를 책임 져야하는 가운데, 어린이사역은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주며 장학금지원은 그 가정의 위로가 됨을 봅니다.

9살때 만났던 사이니아나는 울동을 잘하며, 저희를 만나면 앞장서서 도와주기를 자청하는 피지언 여자 아이입니다.

3살때 부모를 잃고 숙모집에서 자라 어느새 15살이 되었습니다.

6자녀중 큰딸과 둘째딸인 인도인엔지와 뿌자가 받는 장학금은 그 가정의 생계비와도 같습니다.

예배중 아이들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아픔들을 생각하니 아이들도 울고 어린들도 부둥켜안고 함께 읊니다. 치유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사역을 통해 교회에 다시 나오는 가정들이 생기며, BA지역의 복음의 길을 더 넓혀주시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 2 .교회사역

난디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지원받은 물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교회로 흘려 보내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 분유와 마일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했습니다.

작은 선물이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안정감을 위해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는 반면, 예배를 사모하는자, 가난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과부를 품고 고아를 품는 교회,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이 있는 교회,

주님의 눈물과 마음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새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수도시설이 없는 아샤가정

비포장도로로 왕복1시간이 걸리는 라빈가정

남편이 새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방한칸에서 살며, 갈곳이 없어 집을 구하고 있는 이시비나

하나님이 보내 주신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올해 새롭게 세워진 인더언 리더십 로이트&란자나가 잘 세워지고

매주 수요일에 있는 여성중보기도가 더 활성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3.아들람굴 미션센터

행정적인 처리가 아직 남아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초공사와 주변울타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비가 계속 내려 진행이 어려웠는데 우기가 지나가고 있어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생각보다 늘어나는 비용으로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주께서 말씀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으니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찾아온 피지언 샤미는 일자리를 얻고, 교회에 다시 가게 되는 기회가 되고, 아들은 어린이사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폭력으로 샤미집에 온 여동생 가족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동네 아이들도 돕겠다고 해서 함께 일하고 음료수를 사셨습니다.

경제적인 도움과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을 주워서 기초작업을 하는데 아들람굴처럼 돌이 많이 들어 가는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 잠깐 두손을 모아주세요.(기도제목)

1. 차량이 고장 나 시동이 안 걸리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긴급)
2. 교회에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3 "새 생명축제" 을 하려고 합니다. 안 믿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 되길 소망 합니다.
4. 아둘람굴 미션 센터가 순조롭게 건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 굿뉴스클럽(어린이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6. 저희 부부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 인도인예배의 리더로 세워진 로이트과 란자나가 리더로서 본이 되고 성숙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8. 한국에 있는 두아들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이메일: yodyoo@hanmail.net

카톡ID: yodyoofiji

현지 연락처: 070 7744 9676 866 9128

후원계좌: 국민은행 938-002-00-249889 유형준

ASB 12-3230-0069867-00 KWANGJONG YOO

\*정기 후원자와 동역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소서.....

